

제 목	국 문	우리나라 성인층의 비만도에 관한 조사 연구																						
	영 문	Studies on the Body Fatness of Korean Adult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최중명 ¹ , 손락성 ¹ , 송종일 ¹ , 윤태영 ¹ , 조우현 ¹ , 박순영 ¹ , 유동준 ¹ 유근영 ² , 신해림 ³ , 장성훈 ⁴ 1.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4.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분 야	역학	발 표 자	최중명																					
발표 형식	포스터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0),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년 월																							
<p>1. 연구목적</p> <p>비만은 서구사회에서 흔하게 문제가 되는 영양장애의 하나였으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경제발전이 본격화됨으로서 식생활의 향상과 서구화로 섭취열량이 증가하는 반면에 생활여건의 호전, 기술 혁신과 자가용의 증가로 인하여 활동량의 감소가 초래됨으로써 비만의 빈도가 증가되고 있어, 비만의 폐해에 주목할 필요성이 생겼다.</p> <p>비만의 발생 빈도를 보면, 비만분류의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7%에서 10-20%, 또는 성인의 30% 등 여러 보고가 있으며, 영국의 경우 성인 남자의 15%, 여자는 25%, 일본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의 조사에서 남자 10.5%, 여자 10.7%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보고에서 남자 7.7%, 여자 3.1%로 보고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성인들의 비만 유병율에 대한 역학조사가 정확하게 진행된 것은 없으며, 일부에서는 총 인구의 약 10% 정도로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p> <p>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자가 관여하여 연구 조사한 자료들을 토대로 20세 이상 성인층의 성별, 연령별 비만 유병율 및 이에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비만판정 기준치 설정 및 비만 관련 요인들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표준체격 설정 및 비만의 진단점을 설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p>																								
<p>2. 연구대상</p> <table border="0"> <tr> <td>Study 1</td> <td>1993. 7</td> <td>함안군 주민</td> <td>남 : 354 명</td> <td>여 : 497 명</td> </tr> <tr> <td>Study 2</td> <td>1994. 5</td> <td>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td> <td>남 : 2,869 명</td> <td>여 : 1,205 명</td> </tr> <tr> <td>Study 3</td> <td>1996. 7</td> <td>함안군 주민</td> <td>남 : 343 명</td> <td>여 : 545 명</td> </tr> <tr> <td>Study 4</td> <td>1996. 7</td> <td>충주군 주민</td> <td>남 : 363 명</td> <td>여 : 504 명</td> </tr> </table>					Study 1	1993. 7	함안군 주민	남 : 354 명	여 : 497 명	Study 2	1994. 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남 : 2,869 명	여 : 1,205 명	Study 3	1996. 7	함안군 주민	남 : 343 명	여 : 545 명	Study 4	1996. 7	충주군 주민	남 : 363 명	여 : 504 명
Study 1	1993. 7	함안군 주민	남 : 354 명	여 : 497 명																				
Study 2	1994. 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남 : 2,869 명	여 : 1,205 명																				
Study 3	1996. 7	함안군 주민	남 : 343 명	여 : 545 명																				
Study 4	1996. 7	충주군 주민	남 : 363 명	여 : 504 명																				
<p>3. 연구 성적</p> <p>1. 비만 유병율</p> <p>남자 성인에 있어서 비만 유병율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들이 12.1%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다음은 1993년에 조사된 함안군 주민들에서 11.0%를 보였고 1996년에 조사한 함안군 및 충주군 일원 주민들에서는 9.3 및 9.6%를 보여 일반 주민들보다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들에서 비만 유병율이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p> <p>여자에 있어서는 남자와 달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들이 4.1%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으며, 일반 주민들에게서는 1993년의 함안군 주민 19.7%, 1996년 조사에서는 22.4% 및 21.4%였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조사 대상자가 20세부터인 점을 생각하더라도 일반 주민들 보다는 과체중 이상을 보이는 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아 향후 비만 역학 조사에 있어 대상 선정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p>																								

2. 연령대별 BMI 및 비만도 비교

남자에 있어서는 40-49세군에서 BMI 및 비만도가 제일 높게 나타나며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여자에 있어서는 40-49세 및 50-59세군에서 높게 나타나 남자보다는 여자에서 비만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만에 영향을 주는 흡연 및 교육수준을 정정한 뒤 비교한 것에서도 역시 남자 및 여자 모두 40-49세군이 높게 나타나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비만 관련 요인의 상관분석

함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남자에 있어서는 교육수준이 유의한 정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흡연행태 및 연령이 유의한 역상관의 결과를 보였다. 여자에 있어서는 남자와 같이 흡연행태 및 연령이 유의한 역상관을, 교육수준이 유의한 정상관을 보였다. 여성의 임신력과 관련하여 분석한 결과 폐경유무 및 총수유기간이 유의한 역상관을, 임신유무, 유산유무 및 인공유산수가 유의한 정상관을 보였다.

4. 비만 관련 요인 정정 비교

① 교육수준별 비교

남자에 있어서 연령 및 흡연행태를 정정한 후 비교한 결과 학력이 올라갈수록 BMI는 증가되어 대졸 이상의 학력자가 제일 높았고, 초등학교 졸업자가 제일 낮게 나타났다. 여자에 있어서는 연령, 흡연 및 음주행태, 폐경유무 및 총수유기간을 정정한 후 비교한 결과 남자와 같이 초등학교 학력자가 제일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학력자가 유의하게 높게 나옴을 알 수 있었다.

② 흡연행태별 비교

남녀 모두 관련 요인들을 정정한 후 비교한 결과 비흡연자가 흡연자보다 모두 BMI가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③ 음주행태별 비교

남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④ 여성의 임신력 관련 요인

임신유무, 수유유무, 유산유무, 및 폐경유무 모두에서 관련 요인들을 정정한 후 비교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없었다.

5. 식습관 비교

① 비만군별 비교

식습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령 및 교육수준을 정정한 후 20 종류의 식품 소비행태를 비교한 결과 남녀 모두 비만군별 식습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② 흡연군별 비교

연령 및 교육수준을 정정한 후 비교한 흡연군별 식습관 비교에서 남자에서는 과일 소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여자에서는 짬뽕, 매운 음식, 과일, 소금에 저린 생선, 육류소비, 콩류, 해초류, 커피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보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초적인 통계자료 및 비만판정 기준의 문제점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향후 시행되는 비만 연구에 있어 연구 대상의 선정,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비만 판정 기준의 개발, 비만의 원인, 또한 직업에 관련된 비만의 특징 및 비만 관련 질병과의 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